기 고

류 시 범 함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시행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45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등을 최소화하고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고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해 관련법 개정으로(윤창호법) 단속 및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연말연시를 앞두고 일부 운전자들의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일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전남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약 1,000여건에 이르고 음주교통사망사고도 약 38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 또한 주간보다 야간, 특히 밤 10시와 새벽 6시 사이 심야시간대에 사망자 수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에 야간과 심야시간대 집중했던 단속활동 외에도 단속 사각지대나 다름없던 낮시간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교통경찰 외에도 기동대 및 지구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 횟수와 시간을 늘리고 약 20~30분 단위로 이동하며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차량 동승자 형사처벌(방조혐의) 적극 추진과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압수 등 고강도 음주운절 근절책도 적극 시행한다고 한다.

타인의 생명과 귀중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임을 깊이 있게 다짐하고 또 다짐할 일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 지식! "불나면 대피 먼저"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기기의 사용 증가 및 화기 취급의 증가로 전국곳곳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통계에서 보면 화재는 감소했지만 오히려 사상자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건축물들이 복잡한 구조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이전보다 위험성이 커졌음에도 사람들이 연소 확대를 막아보려고 소화기로 화재진압을 시도하거나 119신고를 먼저 하느라 대피가 늦어진 게 원인이라 하겠다.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이 중요하지만 정말 작은 불이 아니면 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방관서에서도 각종 소방교육이나 소방훈련 시 "불나면 대피 먼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018년 11월9일 오전 7시30분경 발생한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는 세입자가 화재 사실을 전파하지 않고 10분 넘게 혼자 불을 끄려다 실패해 대피 지연으로 사망자가 7명 발생했다.

반면 2018년 2월 3일 오전 7시 56분경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발생한 화재에서는 본관 3층 푸드코트에서 시작된 화재가 3시간 만에 꺼졌고 그 사이 환자 300여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 없이 끝났다. 이때 매뉴얼에 따라 대피를 유도한 의료진들의 활약이 빛났다. 화재 징후를 발견하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기본이다. 자고 있을 때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보다 일단 모든 사람을 깨운 후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대피 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승강기는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아래 층으로 대피하고 어려울 땐 옥상으로 올라간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 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해 대피한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119에 신고를 한다. 신고하느라 대피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상시 내가 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피로나 피난기구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불나면 대피먼저, 다시 말하면 불나면 "불이야"를 외치고 대피 먼저 후 안전한 장소에서 신고를 한다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많은 사람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고속도로 터널화재 2차사고 예방주의 생활화 해야

터널화재 사고 소식은 잊을만하면 들려온다. 터널화재 사고는 일반도로 교통사고보다 사고 한 건당 사상자가 40% 더 나올 정도로 피해가 더 크다고 한다. 터널 안에서 피할 곳이 없어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는 터널이 17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아 매년 터널화재 사고도 늘고 있다고 한다. 터널 안에서는 추돌이 일어나도 다중추돌 등 피해가 커서 차량화재로 번져 터널화재 사고가 더 큰 위험을 일으킨다.

먼저, 터널에 진입할 때에는 전조등을 켜고 감속해야 한다. 또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을 하게 되면 뒤차가 급제동하게 되어 추돌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차선변경은 금물이다. 터널 집입시 20% 감속운행하고 대피시에는 갓길 주차하며 차 열쇠는 두고 내리기를 꼭 지켜야 한다. 온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자동차 각별히 터널을 지날 때 유의하자. 또한 각 가정·차량·업소 및 점포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社 說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대 커

광주시가 해마다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며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니 기대가 크다.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들이 몰리는 병목정류소에 점핑버스 또는 3-Door 출퇴근 전용버스 도입, 수요가 적은 노선 준중형버스 투입, 노선입찰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광주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준공영제 혁신 TF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우선 개선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 계획은 시민 서비스 제고,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준공영제 효율성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송업체 서비스 평가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와 선수금 이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카드사의 사업비를 검증해 교통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선수금 이자로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교통복지로 활용키로 했다.

도로가 좁아 시내버스 운행이 어렵고 수요가 적은 노선에는 준중형버스를 도입해 노인 등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운송원가를 절감한다.

출퇴근 시간대 일시에 몰리는 승객으로 버스를 타지 못하는 병목정류소는 점핑 또는 3-Door 혼잡노선 출퇴근 전용 버스를 시범도입한다.

점핑버스는 출퇴근시 만차로 더 이상 승객을 태울 수 없을 경우 해당 정류소에 빈차를 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중기계획 용역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대비해 도시철도와 시내·마을버스 연계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키로 했다.

이번 개선 계획은 재정지원 증가 등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한 것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 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